

시즌3 - 4호 | 시편 76 ~ 95편

PEACE CHURCH

HAPPY MEAL Kit

해피밀은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복있는 일상을 위한 매일 <경건밀키트> 입니다.

해피밀 시즌3 - 4호를 발간하며, 변함없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시다.

살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의 찬바람이 마음을 스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인생도 가을과 닮아있음을 봅니다. 단풍이 물들듯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순간이 있는가 하면, 낙엽이 지듯 슬픔과 아픔을 느끼는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불안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변함없는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의 강하고 따뜻한 손길은 흔들리는 우리를 붙드시며,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시편에는 우리를 사랑하기에 굳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폭풍 속에서 흔들리며 절규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시고 다시 노를 젓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번 해피밀 4호를 통해 우리의 유일한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배로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폭풍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사랑하는 자들을 평안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늘 평안함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2024년 10월 어느날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1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2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여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3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하셨도다 (셀라) 4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5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6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7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8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9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셀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전쟁의 승리자, 하나님**

러닝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러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러닝을 뛰어 본 적이 없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 러닝은 여전히 추상적인 운동입니다. 이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도 정확히 어떤 운동인지 실감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76편은 전쟁을 없애신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무척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렌즈를 조금만 바꾸어서 읽어본다면 곧장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예컨대 매일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작은 전쟁들을 생각해보십시오. 가정에서의 다툼, 자녀들의 탈선, 직장에서의 알력 다툼,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고 등 말입니다. 칼과 총만 없을 뿐,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없애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큰 전쟁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모든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 그분이 완전한 용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관계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과 그분의 백성은 아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 사단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전쟁을 끝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믿음 안에서 이를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큰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작은 전투들은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내 삶에서 전쟁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을 적어봅시다.

Q. 가장 큰 전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최후 승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의 작은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봅시다.

1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2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3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4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5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6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7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8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9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10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11 곧 여호와와 그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피인사이트+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쓴 맛에도 유익이 있을까요?**

요즘처럼 다양한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원하든지 어플을 켜서 클릭 몇번만 하면 문 앞에 배달해주니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식당들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고, 살아남기 위해 눈물을 머금으며 가격을 낮추는 모습도 보게 되곤 합니다. 물론 전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식품 또는 건강 식품이 그렇습니다. 건강 식품으로는 샐러드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샐러드에 들어가는 치커리는 아무리 씹어도 쓴 맛만 나옵니다. 그럼에도 먹는 이유는 치커리가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쓴 맛을 내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곱씹어도 그 맛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 기억에 사로잡힌 듯 합니다. 그것도 아주 단단히 말입니다. 얼마나 심하던지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으로도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탓에 화자는 과연 이 쓴 맛이 사라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나의 고통을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스러운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쓴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있기에 우리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행여 지쳐서 한 마디조차 하지 못하는 순간이 와도 그분께서 구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승리에 대한 기억”**입니다. 고통 자체는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신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쓴 맛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구원의 기억들을 사색하십시오.

하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살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순간에 대해 적어봅시다.

Q. 내게 은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쓴 맛 속에서 믿음 잃지 말고,

주님께 걱정 염려를 올려 드립시다. 그리고 은혜를 구합시다.

1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2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3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4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5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6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7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실까, 8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9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발자국을 쫓다**

누군가의 발자국이 손에 쥔 등불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굳이 다시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발자국이 등불보다 낮습니다.

신앙의 영역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걸어갔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불순종한 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교훈인 것입니다. 총 72절이나 되는 무척 긴 시편이지만 내용은 무척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광야에서 불평하고 시험한 죄, 가나안에서 우상을 숭배한 죄 등)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엄위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구조 안에서 메시지를 2번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는 양극단의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분의 자비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비에만 몰두한 탓에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않을 것처럼 가볍게 치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새겨진 발자국을 보십시오. 교훈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온전히 걸어갈 힘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혹시 신앙의 양극단 중 하나에 빠져 본 경험이 있다면 적어봅시다.

Q. 예수님의 발자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따라 나아갑시다.

1 하나님이며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2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3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 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4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5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주께서 진노하실 때**

어제 우리는 신앙의 교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에 실패한 자들의 말로가 담겨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투에서 비롯된 진노가 이제는 멈춰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질투는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에게 내어줄 때 솟구칩니다. 유혹에 넘어져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할 때 발생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조상들이 잘못했던 일들을 답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범죄하였고, 결과적으로 성전과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1절).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시편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어제와 같습니다.** 불순종의 무게와 자비의 무게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범죄로 인해 심판을 받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은 비참하고 슬퍼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자기 죄로 인해 당한 아픔이지만 역장이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마치 전부 망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직 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시편 기자가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나아가 이방 나라가 주님 앞에 심판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설령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조차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조차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힘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범죄하여 심판 받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맙시다. **주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실패한 자들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Q. 여러분이 구해야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도제목을 적어보고 기도합니다.

8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9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10 그 그들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11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12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13 숲 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14 만군의 하나님이며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15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나이다 16 그것이 불타고 베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17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만군의 하나님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자신들을 핍박하던 강대국으로부터 탈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신구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출애굽 시켜주시어, 온전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토록 귀한 포도나무가 상하게 된 것입니다. 불에 타기도 하고, 멧돼지와 들짐승들에게 먹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화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분을 “만군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말합니다. “만군의”라는 수식어는 구원을 바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일찍이 애굽으로부터 구해주신 것처럼, 다시금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에 넘어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능력과 의지 모두 유한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참 감사하게도, 그분은 이런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갑작스럽지만 요한복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총 7가지의 이미지를 통해 “나는 ~이다”라고 설명하시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이는 자기에게 덧붙여진 가지들은 살아나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출애굽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께 붙들린 가지입니다. 주님께 의존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담대히 사십시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본문 속 포도나무가 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진정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가지가 얻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온 가족 <시편 80편> 묵상하기

1. 시편 80편을 필사해봅시다. (청소년, 청년용)

8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9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
혀서 땅에 가득하며 10 그 그들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11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냇물이 강까지 미쳤거
늘 12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13 숲 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14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15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나이다 16 그것이 불타고 베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17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2. 시편 80편의 의미를 나눠봅시다. (가정의 대표자)

대표자가 '월요일 해피인사이트'를 읽거나 혹은 교회 유튜브를 통해 '토요일 미니홈피 영상'을 함께 시청합니다.

3. 핸드폰 배경화면을 변경하고 한 주 동안 묵상해봅시다. (온가족)



시편 80편 배경화면 다운로드 (QR 코드 스캔)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1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2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3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4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5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 13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14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15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16 또 내가 기쁨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의 시간에는 무엇이 가득 하나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과 장소 속에서도, 순간 순간 가을의 향기를 들이쉬면서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답답함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정리하는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81편의 시편 저자는 우리의 찬양이 전심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를 읊고, 소고를 치고,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는 행위가 갖는 의미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온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도록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까요? 3절. 초하루와 보름에서 우리는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달이 기운 초하루와 가득 찬 보름은 한 달 전체를 이야기 합니다. 이말은 즉, 언제나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의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은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내내 하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왔으며, 납득이 되지 않은 십자가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의 시간에는 무엇이 가득 하나요?

Q. 성경을 읽으면서 납득되지 않았던 본문이 있나요?

1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2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낮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3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4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5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6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7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 같이 넘어지리도다 8 하나님이며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주님과 함께 하는 신앙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배려하고, 인내하고, 술선수범하여 나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런 노력은 이내 사라집니다. 마치 집에서 쉴 때 씻지도 않고, 후줄근한 옷을 입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혼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혼자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시간과 장소 가운데 계시며 그분의 공의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한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주님의 심판하심 앞에서 겸손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냐며 악을 즐긴다면 결국 심판 가운데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은 어떤 이들일까요? 5절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불쌍한 모습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멸망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지만 한낱 인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원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와 함께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아무도 없어서 몰래 죄를 지었던 적이 있나요?

Q. 주님의 법과 원리로 살아가기 위해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 하나님이며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며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2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 5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 9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 13 나의 하나님이며 그들이 굴러가는 겁 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14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15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16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17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18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압력밥솔**

압력밥솔로 밥을 지을 때 중요한 중에 하나는 시간입니다. 5분 강불, 5분 약불, 5분 뜸을 들였을 때 드디어 맛있는 밥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싫다고 중간에 불을 꺼버리거나, 뚜껑을 열어버리면 설 익은 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가장 좋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때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빨리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욕박지르곤 합니다.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대적들은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에돔의 장막부터 롯 자손까지 모두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저자는 사사시대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이스라엘은 승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때 악인들의 모습은 실로 참담합니다. 굴러가고, 날아가고, 모조리 타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세계 가운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는 끊어지고, 악인은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노래하던 이들은 십자가 앞에서 철저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치를 주던 이들은 수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주님의 시간,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주님의 때를 위하여 얼마나 기다려 보았나요?

Q. 기다릴 때 기분이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왜 즐겁지 않았나요?

1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 5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7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8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 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9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10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종사오니 11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2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주님의 집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때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익숙하여 오해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선이 득세하지 못하고 실세하였을 때 우리는 잘못된 관점으로 선을 선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악이 득세하였을 때 우리는 악은 선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혼합되어 우리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고 늘 오해 가운데 살아가곤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은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증오심으로 인해 오히려 죽음의 사면초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일했는데 오히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진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 어디에 있는가, 다윗이 갑자기 벌을 받는 데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의 편에서 구분하지 못하고 단순히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고, 못 되고를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모든 일들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대처법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렸습니다. 피난처, 요새이신 주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다윗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고 그를 향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욱 듣고, 신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여러분의 집은 편안합니까? 그곳에서의 하루를 기뻐하고 있나요?

Q.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자유롭게 나눠봅시다

1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 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2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3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4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 8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9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10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1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12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13 의가 주의 앞에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바랄 수 없던 방법**

시험에 떨어진 후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나요? 다음에는 합격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실패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뻐할 수 있나요?

70년의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한 본향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참히 짓밟히고, 불타버려 이제는 흔적조차도 남지 않은 그곳을 보며 그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간적인 감정보다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기뻐했습니다. 슬픈 감정이 완전히 없던 것은 아닙니다. 슬픈 감정보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컸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더욱 기뻐했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신실하게 윤행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까지도 감당하셨는지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의 고백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이 순간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실상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결국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감히 바랄 수 없던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어떠한 삶(좋은, 좋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Q.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위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식구 다 같이 <시편 84편> 먹기

가정에배 미니홈피

- 1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 2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 3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 4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 5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 6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 7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 8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 9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 10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 11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 12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6편 1-7절

1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2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며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3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4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5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6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7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반영하다

오늘 함께 읽는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어떤지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다윗은 '또 다시'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을 읽다보면, 다윗의 인생에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늘 고난 속에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듯 해보이니 말입니다. 비단 다윗의 인생 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와 같은 힘겨운 나날의 연속입니다. '러셀 무어'는 자신의 책 '폭풍 속의 가정'에서 모든 가정이 '폭풍' 속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이야기들로 말미암은 폭풍이었습니니다. 예정된 죽음 앞에서 누구나 사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있을 법한 불행한 일들을 우리는 상상하며 불안과 염려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통찰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자연스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윗은 이러한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는 자신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하다(2절)'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형태와 모양이 뚜렷하다 아닐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행동에 하는 인간의 반응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며, 그분의 기쁨을 담아내고, 그분의 미움을 반영하며,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모든 것 정의, 사랑, 자비, 희생, 양선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건은 종교생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행동을 반영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 악인들로 부터 고난을 겪고, 인생의 풍랑을 지나가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했으며, 그렇기에 하나님을 반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쓰는 것과 같이 노래와 가사로 하나님께 반응하였기에 그는 '경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과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봅시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는 고난 중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Q. 하나님을 반영하기 위해 다윗과 같은 시편을 적어봅시다.

시편 87편 1-7절

1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2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3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4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5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6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7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시온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편이 쓰였던 시기는 대체로 포로기 이후로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져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온'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시편 기자는 그 성전이 영광스럽다(3절)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자욱이 남아 황폐해진 그 땅이 '영광스럽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땅이 영광스러울 수 있는지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황폐한 땅조차 영광스러운 것은 그 땅에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사랑하사 그 황폐해진 땅에 임재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황폐함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부와 권세와 명예와 명성은 없지만, 빛나고 아름다운 사람 말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가득하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기에, 또 그분의 임재에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호작용하며 반영하기에, '경건'한 자. 그러한 자들의 '경건'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이 땅에 비추어질 줄 믿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Q.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경건한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88편 9-13절

9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10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11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12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잊음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13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시험이 들 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88편은 극심한 고난과 환란 속에 있는 화자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시편들과는 다른 부분은 대부분의 탄원시들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적인 분위기의 반전을 이룹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반전은 없습니다. 계속되는 어둠 속을 화자는 걷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어본 시편 88편 9-13절 말씀에는 시편 기자의 변하지 않는 신뢰가 묻어나는 듯합니다.

9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란 중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10~12절 말씀은 상반된 두 단어 그룹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 탄원시에서 분위기의 반전이 되었던 신뢰와 소망의 표현들입니다. 그것은 '기이한 일', '찬송', '인자', '성실', '기적', '공의' 입니다. 또 다른 단어그룹은 '죽은 자', '유령', '무덤', '멸망', '흑암', '잊음의 땅'이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다른 색채의 언어가 나열되며,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이것이 신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과정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시험에 드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아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고난과 환란의 암담한 상황 속에서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성실과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분의 공의와 정의로 운성품이 무엇인지 멈추지 않고 생각합니다. 비록 자신은 죽음에 직면한 상황이고, 마음은 유령과 같이 허망하며, 무덤같이 무너져있고, 흑암처럼 어둡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치열하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이야기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야기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빌 4:7)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고난과 환란의 때에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나요?

Q. 현재 직면한 나의 삶에 대처점이 되는 믿음의 고백을 지어보세요.

시편 89편 1-10절

34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35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36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 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37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38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39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40 그의 모든 율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41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42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였으나 43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44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얹으셨으며 45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그러나 속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89편은 반전의 요소가 극명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37절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분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의 대적을 무찌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나, 38절부터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그러나'로 시작되는 시편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실하시고, 보호자 되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노를 발하고 계시고, 하사하셨던 다윗의 왕관을 땅에 던져버리십니다. 대적에게 능욕 당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원수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반부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시편 기자의 상황 속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답지 않는 모습'들이 왕왕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분의 자녀 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답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는 일들을 볼 때 여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다윗 왕권이 몰락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원수의 손에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한 '하나님다움'을 찾기 극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다니엘 9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권면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 나가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다니엘과 같이 바르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면 나누어보세요.

Q.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시편 90편 3-12절

3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4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 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5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6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7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 오니 9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 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1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 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12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인생의 지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시편 90편은 모세의 노래로 알려진 시편입니다. 아마도 이 시는 출애굽 사건 이후에 모세가 쓴 것으 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모세의 노래가 시편 제4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가장 마지막 구 성, 즉 시편의 완성단계에 구성된 시편 4권을 읽고 불렀을 이들은 아마 포로기 혹은 그 이후 후대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포 로기와 출애굽기 이 두 역사의 간극은 실로 엄청납니다. 출애굽은 기원전 1500년에 이루어졌고 포로 귀환기를 대략 기원전 500년으로 상정한다면 무려 1000년의 격차입니다. 이러한 1000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세대가 지나갔을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에서는 인생의 짧음을 아침에 피어났다가 저녁에 지는 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 습니다. 인생은 짧고, 덧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분에게는 천 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는 출애굽부터 포로귀환까지 신실하고 꾸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셨습니다. 출애굽은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로귀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와 인생의 연약함으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분 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 500년의 시간이 지난 뒤 이 땅에 그리스 도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대표한 맏아들로서 상속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시편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분의 일하심에는 그분께서 쓰시는 하 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지혜'를 통해 우리의 덧없는 인생조차 그분께 드리기를 힘씁시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지나간 인생의 날수를 계수해봅시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

Q.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야기를 묵상해봅시다.

우리 식구 다 같이 <88편> 먹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1. 아동(11~13세) 자녀와 함께 말씀먹기

1) 우리 가족 성경 읽기 : 시편 84-89편까지

온 가족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읽기를 진행해보세요. 오늘은 시편 84-89편까지입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기를 진행하셔도 되고, 목소리 좋은 사람이 대표해서 읽어도 좋아요!

2) BINGO! 빙고타임! 시편 88편을 읽으며 기억에 남는 단어를 골라 3x3 빙고를 완성해보세요.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매일에 감사하라!

무언가가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생각하고 연구하고 추론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 맛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요아정>의 평점을 보고, 메뉴를 시킨 뒤 먹어봐야 맛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사실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큰 위안을 주게 되어요.

우리 OO이는 치과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충치치료, 생각만해도 너무 두려워요. 엄마, 아빠도 그랬어요. 하지만 한 번 받아보니 괜찮더라구요. 몇 번 더 할 만하더라구요. 충치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을 파악함으로 평안함을 얻게 된 것이죠.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두려움이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소망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해요. 그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OO이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줄 거예요. (부모님의 간증이 있다면 하신 뒤,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1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2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으로 다 4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5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6 천 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었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7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시인은 하나님을 지존자, 그리고 전능자라고 고백합니다(1절).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인의 신앙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미 새가 그 날개 아래에 새끼를 품어 보호하듯이(4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심으로써 악인들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숨기시며 보호하십니다(5~7절). 그러므로 우리가 피할 곳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십니다(14절).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는 뜨거운 마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만 바라보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에 힘쓰며, 또한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데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을 높이십니다(14절). 신분 상승의 높임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까지 끝까지 그분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스테반이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그를 강하게 하시며 그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과 보호하심은 세상을 이겨나가는 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삶에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 때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Q.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달려 나가는, 피하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7 악인들은 풀 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8 여호와여 주의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9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흠어지리이다 10 그러나 주께서 내 뿌를 들소의 뿌 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11 내 원수들이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 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12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13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4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15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화려하게 피었다가 금세 지는**

오늘 말씀에선 악인은 멸망하고 패망하여 끝내 흠어질 것임을 선포합니다(7-9절). 이 세상에서 악인에겐 잠깐의 번성이 있는 것 같지만 들풀이 아침 해와 뜨거운 동풍에 말라버리듯이, 악을 행하는 주의 원수들은 결국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질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악인들로 인한 고난, 압박, 환란으로 인해 낙망하지 마십시오. 안개와도 같이 잠깐 있을 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마십시오. 잠깐 누리다 사라질 것들을 위해 영원한 것들을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악인들은 화려하게 피었다가 금세 사라지는 풀과도 같지만, 의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 한결같이 풍성하게 결실하며, 늘 안전하고 싱싱한 백향목과 종려나무와 같게 하십니다(12-13절). 의인의 번성은 세상에 속했을 때 이뤄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번성은 부에 있지 않습니다. 번성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15절).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불의함이 없게 하십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의인의 번성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Q.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번성이 의인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1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2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3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4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5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께 영원무궁하시리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거친파도 날 향해 와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제한이 없으며 무한합니다(1절). 하나님의 통치는 열방까지이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1절). 이방 신들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그분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습니다(2절).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므로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다스림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영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영역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므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저항하는 높은 파도와도 같은 존재들은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도 있습니다(3절). 파도는 마치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란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4절). 파도의 세력, 인간의 세력이 닿지 않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보다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아직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삶의 영역, 내 뜻대로 다스리고자 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Q. 거친파도 마저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그가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파도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부터 평안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1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어 빛을 비추어 주소서 2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3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4 그들이 마구 지껄이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5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6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7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8 백성 중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9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1절). 하나님은 복수하시되 감정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정확히 악인에게는 형벌을 주시고(2절), 의인에게는 보상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수는 공의를 나타냅니다. 정도 이상의 복수도 아니며, 정도 이하의 복수도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러한 공의가 왜곡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실에서 벗어난 재판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악인은 오랫동안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3-4절), 반대로 연약한 자들은 오히려 더욱 압박을 받습니다(5-6절). 이처럼 정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불합리한 행위와 상황들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시며,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 속에서 오히려 악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합니다(7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보고 계십니다(9절).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며, 듣지 못하는 마음의 소리까지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또한 듣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애써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이자 소망이며 축복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계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위로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Q.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선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3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지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4 땅의 깊은 곳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6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9 그 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10 내가 사십 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예배의 방법

오늘 본문은 예배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라”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배고프면 자동으로 음식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정성스럽게 자녀에게 음식을 차려줬는데 자녀가 그 음식을 억지로 먹으면 부모는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을 갈망이 있는 예배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바로 “노래하며(1절)”입니다. 노래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 예배 방법은 소리를 높여 주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 예배 방법은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의 음성을 드는 것(7절)”입니다. 예배에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이유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며(3-6절), 또한 우리의 목자입니다(7절).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인도합니다. 먹입니다. 양인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분을 노래하며 그분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목자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순종은 없을 것이고, 찬양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므리바 사건 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8절).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닌, 순종으로 이어져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는 억지로 주님께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까?

Q. 예배에 대한 배고픔을 잃었던 백성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기억합니다. 구원의 기쁨에 회복이 필요하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식구 다 같이 <시편91편> 색칠하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미취학(3~7세) 자녀와 함께 말씀으로 색칠하는 하루

시편 91편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들과 함께 색칠공부를 해보아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하시고 보호해주세요.



COME

평안교회
소개영상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Tel 0507-1365-8119

E-mail peacechurch@gmail.com

Adress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로218번길 110 수원평안교회 **Homepage** www.peacechurch.kr